

# 儒敎와 基督敎의 天思想 同異考

宋 宛 培\*

〈 目 次 〉

I. 머리예	III. 儒敎의 「仁」
II. 漢民族의 「天」思想과 유대민 족의 「하늘」	1. 「仁」의 정의
1. 漢民族의 天	2. 儒敎의 敎育法
2. 유대민족의 하늘	3. 儒敎의 政治思想
3. 두 민족간의 天思想 比較	IV. 儒敎의 「仁」과 基督敎의 「愛」
	V. 맺음말

## I. 머리예

宗敎란 인간이 神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이다.

儒敎는 孔子를 시조로 하여 仁義를 근본으로 하는 政治·道德의 실천을

---

\* 新星專門大學

주장하는 儒學의 가르침을 말하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사랑을 따름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儒敎의 「儒」라는 말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典籍은 「論語」인바, 1) 여기에서 儒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되어, 君子는 儒가 되면 道를 밝히고 소인이 儒가 되면 그 이름을 내어 이익을 찾는다 하여 학문이란 도덕성을 키워서 인격의 완성자인 君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儒가 孔門을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儒家의 차등적인 禮의 實踐, 受動的인 運命論 및 옛것을 따르는 보수성을 비판한 墨家에서 비롯되어, 莊子 및 韓非子 등 다른 학파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이었으며, 儒家에서는 「孟子」「盡心篇 下」 26장에서 처음으로 孔門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 2) 漢代 이후로 儒는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 다음 「敎」란 가르친다는 의미로, 先王과 孔子의 가르침 그 자체를 가리켰다. 따라서 儒敎라는 용어는 교육을 통해 德化를 실현하려는 도덕적·정치적 사상체계를 지칭한다.

基督敎란 예수그리스도의 설교와 행적,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친 복음선포와 교리를 핵으로 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정신체계를 말한다.

「仁」은 孔子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움의 결실로 君子가 체득하는 德의 결정체이다. 즉 「仁」이란 人間性의 完成인 것이다. 기독교의 하늘은 自存者이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主宰者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敎理대로 사랑을 통하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신앙이다.

本稿는 유교의 핵심인 「仁」과 기독교의 「사랑」을 비교하여, 두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점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종교

1) 論語 雍也 13

2) 金承惠, 「原始儒敎」 10쪽 재인용, 대우학술총서, 1994

를 윤리규범으로 삼고 있는 한민족과 유대민족이 인식하고 있는 「天」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본 후, 儒敎의 天에 대한 이해방법인 「仁」의 내용을 연구한다. 무엇을 「仁」이라고 하는지, 「仁」을 이룩하기 위한 공자의 가르침은 어떠하였는지, 「仁」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떠하였는지는 「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仁」과 基督教의 「사랑(愛)」은 어떠한 同異점이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 II. 漢民族의 「天」思想과 유대민족의 「하늘」

### 1. 漢民族의 天

中國人の 天에 대한 思想은 孔子 이전에도 중국 古代로부터 전래되는 民族信仰이었다. 그것은 人間의 禍福을 좌우하는 恐怖의 天이었다.<sup>3)</sup> 중국인들이 黃河流域에서 농경에 종사한 이후로 旱災, 水災, 風災 등의 자연의 災害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자연의 재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의 背後에 어떤 權威者가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서 天思想이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창창한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를 상징하여 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天에 대하여 許慎은 「古文尙書」중 歐陽說의 해설에서, 봄은 昊天, 여름은 蒼天, 가을은 旻天, 겨울은 上天이라 하고 이를 총괄하여 旻天이라 하였는데, 이 들은 모두 天이라는 형체의 배후에 어떤 주재적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天은 孔子에 이르러 그의 사상과 인격이 가미된 天으로 바뀐다. 물론 공자에게서도 재래의 天의 사상을 부정하는 태도는 볼 수 없으나, 그의 天의 概念은 人間을 發見하고 自我를 의식하여 人性 안에 內在한 道德律을 통하여 自我속에서 느껴지고 이해된 하늘로 발전한다. 孔子는 天을 이해함에 있어 人間의 본질인 仁을 통하여 이해하였고, 人間의 주체성으로서의 仁과 분리하여서는 天은 天이 될 수 없었다. 仁은 孔子의 中心思想으로서,

3) 한중식, <기독교의 이해> 269쪽,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

仁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孔子의 天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실생활이 至善에 이르게 된다. 공자의 사상을 표출한 論語의 주요한 내용은 仁에 대한 설명이며, 이 仁은 「人心」의 모든 德이요 온갖 善의 근원이다. 따라서 德을 밝혀가는 그 자체가 仁이요, 仁을 밝혀가는 것이 天을 밝혀가는 것이 된다.

한쪽은 천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詩經」大雅 蒸民篇에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하늘에서 온갖 것이 생성하였으니, 형체가 있는 것은 무두 그나름의 법칙이 있다. 사람들이 타고난 천성을 잘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덕행이다」

위와같이 漢民族은, 天은 인간의 형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덕성과 양심을 부여하였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사회도덕규범도 天來의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漢人들은 인간의 智力과 상상력으로 天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유대민족의 하늘

舊約 創世記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5일 동안에 모든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날 하느님의 형상과 같이 아담과 이브 남녀 두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의 가축과 온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고 만물과 사람을 함께 축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보아 기독교인들이 인식한 하느님은 자존자이며 우주와 인간역사 이전의 존재자로 인식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느님과 같은 형질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는 특권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보면, 그를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독교는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the incomprehensible One)이라고 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은 알 수 있는 분(He can be known)이고, 그를 아는 지식이 구원을 얻는데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한다.<sup>4)</sup>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느님의 자기계시(th divine self - reveiation)로서만 인간은 그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계시의 개념이 도입된다. 계시란 라틴어 레벨라시오(reveatio)에서 유된 말로서 「가려졌던 것을 벗긴다(unveiling)」는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수용할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느님은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낼 사명을 주셨다고 하고, 19장과 20장을 보면 하느님이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민족헌장인 십계명을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셨다고 하였다. 이같은 하느님의 직접적 계시의 사례는 '모세'이후, 역대 제왕과 선지자들에게 언제나 있었던 사실이며, 신구약성경은 하느님의 직접적 계시를 수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3. 두 民族간의 天思想 比較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漢民族과 유대민족의 하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인식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尙書」의 虞書 舜典에

---

4) 한중식, 상계서 179 쪽 재인용

「肆類于上帝 陞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群仙」<sup>5)</sup>

“상제에게 온갖 물건을 바치고 육종에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우러러 보며 군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또 「禮記」祭義에는

「祭日於壇 祭月於坎 祭日於東 祭月於西」<sup>6)</sup>

“태양의 제사는 단에서 달의 제사는 감에서 태양의 제사는 동에서 달의 제사는 서에서” 라고 하여 해와 달에 제사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논어」八佾편에는

「祭如在 祭神如神在」<sup>7)</sup>

「조상에게 제사할 때는 조상이 옆에 계시듯이 신에게 제사할 때는 신명이 임하여 있듯이」라 하여 정성과 공경을 다한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漢人들은 최고의 神인 天에 제사함과 동시에 많은 神들에게 祭祀하는 것을 상례로 하여 다신교적 경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의 십계명중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준수하

---

5) 김능근, 《유교의 천사상》 219쪽 재인용,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6) 「禮記」 祭義

7) 「論語」 八佾 12

여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배하여 왔다. 신구약 성서는 유일신인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대결하여 승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 유대인은 신앙과 의식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같이 유대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唯一神으로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再臨을 믿으며 실리에 밝은 민족이며, 한민족은 윤리와 실리를 기초로 과거의 이상적이고 복고적인 면에 치중하여 동양문화를 창시하고 발전시켜 문화적 긍지와 주체의식이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儒敎의 「仁」

#### 1. 「仁」의 정의

孔子께서는 '道'와 '德'으로써 儒敎를 大成시켰다.<sup>8)</sup> 중국 周代 「禮」의 制度를 기록한 책인 周禮를 보면 옛날 궁중과 府中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을 冢宰라 하였다 한다. 이 冢宰의 아홉가지 직책 가운데 중요한 部屬중 세제가 師로서 師는 賢으로써 民心을 얻는 직책이고, 네제는 儒로서 儒는 道로써 民心을 얻는 직책이라 하였다. 後人들의 注를 종합하여 보면 "儒란 사람들을 교화하여 溫和善良케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sup>9)</sup>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論語」의 雍也편을 보면 "너는 君子儒가 될 지언정 小人儒는 되지말라"고 弟子인 子夏에게 타일렀다. 이에 대하여 朱子是 '儒는 學者의 稱이다'라고 해석하였다. 또 「周禮」에는 道는 六禮로서 이것에 정통한 사람을 儒라 하고 六德과 六行을 닦아 덕행이 우수한 사람

8) 김능근, 상계서 121쪽

9) 鄭玄은 '儒는 六禮로써 백성을 가르치는 자'라 하였고, 「禮記」의 孔穎達疏에는 '儒는 유순하고 優雅하다'라 하였으며, 「廣雅」는 '儒는 柔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을 師라 하여 師와 儒를 兩分하고 德과 道로써 각기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렇게 兩分對立되어 있던 道와 德, 師와 儒를 통합한 사람이 공자이다. 공자는 道와 德을 하나로 하고 자신이 師와 儒를 겸하였다. 이렇게 孔子는 道와 德으로써 儒教를 집대성하였으며, 唐虞 삼대의 聖君賢相의 遺訓을 계승하여 儒教의 開祖가 되었다. 10)

孔子가 일생동안 말한 것이나 행한 것은 그 모든 것이 '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은 孔子가 시조인 儒教의 精髓라 할 수 있다. 孔子가 仁을 말함에 있어, 상대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고 仁 자체에 대한 정의를 말한 일은 없다. 孔子의 弟子중에도 仁을 완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후에 亞聖의 칭호를 받은 顏淵에게조차도 孔子는 이렇게 평하였다.

「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則日月至焉已矣.」 11)

「顏回도 그 마음이 겨우 석달동안 仁을 어기는 일이 없었을 뿐이고 나머지 弟子들은 혹은 하루에 한번씩 혹은 한 달에 한번 정도로 仁에 이르러 뿐이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儒教에 있어 仁은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德目인가를 알 수 있다.

인은 인륜교제상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친애한다는 뜻이다. 맹자는 측은의 마

음은 仁의 단서라 하고, 程明道는 仁者는 天地萬物로써 一體를 삼는다 하고, 李延平은 仁者는 理에 당하여 私心이 없다 하고, 朱子는 仁은 心の

10) 朱子는 中庸章句序文에서 “堯舜禹의 繼承과, 그후 聖君인 成 湯 文王 武王과 賢臣인 皋陶 伊尹 傅說 周公 召公 등이 모두 道通의 계승자이며 공자는 이들을 계승하고 來學을 啓示한 점에서 요순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였다.

11) 論語 雍也.



德이며 愛의 理라 하였다.<sup>12)</sup> 이상의 말들은 다 仁을 친애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論語에 나타난 공자의 仁은 단순한 친애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태로 설명되어 있다. 그 말들을 살펴보면 仁한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어떤 일을 성립하려 하면 다른 사람도 성립하도록 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달성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달성하도록 한다. 이를 論語의 문구 중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자는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이익은 뒤에 취한다. 이를 인이라 할 수 있다.」(仁者 先難而後獲 可以仁矣. 雍也) 「오직 인한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도 하고 사람을 미워도 한다.」(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里仁) 「지자는 의혹하지 아니하고 인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용자는 두려워 하지 않는다.」(智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子罕) 「지자는 물을 즐기고 인자는 산을 즐기며 지자는 움직이고 용자는 고요하다. 지자는 즐거워하고 인자는 오래 산다.」(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雍也) 「인의 덕을 갖추지 못한 자는 장기간 궁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며, 거꾸로 안락한 생활도 오래 계속하지 못한다. 인자는 인에 安住하고 知者는 인의 덕을 수단으로 하여 살아간다.」(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仁者安仁 知者利仁. 里仁) 이상에 열거한 仁에 대한 고자의 설명을 보면 仁은 단순한 慈愛의 德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자의 言行에 나타난 바의 仁의 내용은 실로 허다하다.

즉 誠, 敬, 忠, 恕, 孝, 知, 溫, 良, 恭, 儉, 讓, 中, 明, 聰, 直, 禮, 清質, 廉, 潔, 果, 柔, 信, 敏, 慧, 勇, 愛, 寬, 和, 友, 順, 剛, 義 등은 모두 내포된 德目 들이다. 이와같이 人을 완성한 자를 聖人이라 하고 仁의 政治를 실현한 자를 聖君이라 한다. 즉 仁은 人心의 全德이며 온갖 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 2. 儒敎의 敎育法

12) 김능근, 상계서 223쪽 재인용

유교가 생성된 중국에는 道敎와 儒敎 외에도 印度에서 들어온 佛敎가 있었다. 유럽의 경우에 다른 종교 사이에는 갈등과 대항의 요소가 생성되는데 반하여, 中國의 경우에는 排他的이기 보다는 包容的이었다. 수트힐 (W. E. Soothhill)<sup>13)</sup>은 이 세 종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킵에 있어 유교가 부족함 점은 불교가 보충하고, 사후의 계속적인 존재에 관한 유교의 불확실성은 도교의 교리로써 보충한다」

유교는 공자가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또한 종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하여온 종교사상을 경건히 실천하며, 주로 세상에 관한 일을 말하고 가르쳤다. 그는 정치와 도덕을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가르쳐,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한 종교의 뿌리를 마련하였다.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후세의 儒家들은 天縱의 성자로서 生而知之하였다고 칭송하나, 공자 자신은 한번도 자신의 聰敎를 자랑한 적이 없으며 항상 겸손한 태도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대성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論語」 爲政篇에

子曰「吾十有五而志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距」<sup>14)</sup>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살에 학문에 대한 뚜렷한 식견을 가지게 되었고, 마흔살에 사리를 알게되어 유혹을 받는 일이 없었고, 쉰살에는 하늘이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예순에는 듣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되었고, 일흔살에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행

13) William E. Soothhill, 《The Three Religions of China》, L. Hodder & Stoughton, 1913. 한중식, 상계서 265쪽 재인용

14) 論語 爲政篇 4

하여, 항상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노라」

또한 述而篇에

「我比生而知之者, 好古敏而求之者也。」<sup>15)</sup>

「나는 나면서부터 道를 안 天才도 아니며, 오직 옛 성인의 글을 좋아하여 힘을 다하여 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자는 수양을 쌓아서 仁을 집대성한 凡人이다. 공자가 제자들을 교육한 목적은 仁을 완성시키는데 있음은 물론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성격, 환경, 수양정도에 따라서 각인 각색이었다. 그 實例로 論語 先進편에

「子路問, 聞斯行諸이니까? 子曰, 有父兄이 在하시니 如之何其聞斯行之리오.

冉有問, 聞其行諸이니까? 子曰, 聞斯行之니라.

公西華曰, 由也問 聞斯行諸어늘 子曰, 有父母在, 라하시고, 求也問, 聞斯行諸어늘, 子曰, 聞斯行之라 하시니 赤也惑, 敢問하노이다.

子曰, 求也 退, 故 進之, 由也 兼人, 故 退之.」<sup>16)</sup>

「子路가 공자에게 물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하여도 좋겠습니까?” 공자께서 답하시기를 “부형이 위에 계시니 그 분들께 먼저 여쭙어 봐야지 어찌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할수 있을까?”라고 하셨다. 冉有가 또 공자에게 물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는 “들은대로 곧 실행하여야 하오” 라고 답하셨다. 公西華가 이 말을 듣고 의아하게 여기고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들은 말을

15) 論語 述而篇 19

16) 論語 先進篇 22

실행할까 하는 질문을 받으시고, 자로에게는 부형이 계신데 들은대로 실행할 수 있겠나? 하셨고, 또 염유에게는 들은대로 곧 실행하라 하셨습니다. 왜 선생님의 대답이 다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쭙어 봅니다 하였다. 이에 공자께서는 염유는 겸양하여 뒷걸음만 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자로는 항상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서길 좋아하니 좀 견제하려고 그렇게 말하였노라 라고 답하셨다.

↓

또한 공자는 제자들을 대할 때에 조금도 차별이나 거리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공자의 一舉一動은 항상 제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공자의 教育方法은 판에 박은 듯이 하는 획일주의가 아니고 個性本位이며 啓發主義였다. 공자의 仁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곤란한 것 만큼, 그 인을 설명하기 위한 유교의 교육법도 간단하지 않았다.

### 3. 儒敎의 政治思想

공자는 仁으로써 제자들을 교도하였으나 仁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실권을 잡는에 유의하였다. 이것은 공자가 권력에 대한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人道를 실천하려는 순수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諸侯들의 세력확장 욕망으로 세상이 혼탁하여 인륜도덕은 땅에 떨어진 혼탁한 시대였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했던 공자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理想하는 바의 仁政을 실현하려고 사방을 돌아다녔다. 공자의 정치론은 구체적인 정강정책의 표현은 없고 다만 그 원리만을 제시한 데 지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은 仁의 실천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공자는 堯舜의 政治를 理想으로 하고 文王, 武王, 周公의 政治를 목표로 삼아, 이와 같은 政治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공자는 政治의 實際에 있어서 有德한 君子가 政治의 중심이 되어야 한

다는 人格本位의 政見을 가졌다. 그러므로 政權을 잡은 사람은 우선 자기의 몸가짐을 바르게 한 후에야 백성들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論語 子路篇에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誰令不從」 17)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그 몸이 不正하면 명령할 지라도 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정자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莫重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 利慾에 빠진 季康子가 공자에게 政治의 意義를 물으니 공자는

「政者 正也, 子師以正 孰敢不正」 18)

「政이란 바로 바르다는 뜻의 正입니다. 대감 자신이 바르게 처신한다면, 누가 감히 부정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子貢이 정치의 요령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는

「足食足兵, 使民信之矣. .... 自古皆有死, 民不信不立」 19)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고 병력을 충실히 하고 백성이 위정자를 신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옛부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므로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다.

17) 論語 子路篇 6

18) 주18) 論語 顏淵篇 17

19) 論語 顏淵篇 7

이상의 말들은 법자체 보다도 법을 시행하는 자의 정신을 높이 보고 정치 자체보다도 행정자의 인격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법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공자는 人間社會에서 上下尊卑의 관계를 엄격하게 차별하고 大義名分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국가를 유지하는데 주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한계를 지키는데 대한 훈련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儒家들이 禮儀節度を 重視 함은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V. 儒敎의 「仁」 과 基督敎의 「愛」

공자의 仁은 三代思想의 근원에 대한 신념에 그 기초를 두었다. 공자는 仁을 실천하고 仁을 가르침으로써 천을 섬기고 天의 뜻을 順從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仁은 儒敎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이 仁을 이룩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을 아주 중시하였다. 儒敎의 理想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 있다.<sup>20)</sup>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윤리체계이다”<sup>21)</sup>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을 중요시하며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가지는 종교이다.<sup>22)</sup>

공자는 仁을 행하는 것이 곧 하늘에 기도하는 행위라고 믿었다. 이는 공자가 일상생활에 있어 정직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는 실천도덕가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기독교에서, 옳지 못한 행위를 준엄하게 규탄한 예수의 태도와도 상통한다.

이 두 聖人의 말씀들 예를 들어 비교하여 보자. 齊의 大夫 陳恒이 그의 임금 簡公을 죽였을 때 공자는 목욕재계하고 入朝하여 魯의 哀公에게 陳恒을 토벌할 것을 상주하였다.

20) 大學 八條目

21) 閔庚培, 《世界的 宗教들》 “儒敎” 115쪽,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3

22) 한중식, 상계서 275쪽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陳恒 弑其君 請討之。公曰，告夫三子..  
孔子 曰，以吾從大夫之後，不敢不告也。」 23)

「.... 진항이 그 임금을 弑害하였습니다. 부디 그를 정벌하옵소서. 애공  
이 말하기를 삼환씨와 상의하시오. 공자께서 대궐에서 나오시자 말  
씀하시기를 “나도 大夫의 末席을 차지하고 있는 몸이라 上奏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비록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의 행  
동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으므로 강력히 징계하려는 의용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불의에 항거하는 것과 비  
교된다. 공자는 또한

「朝聞道，夕死可矣。」 24)

「아침에 진실한 도에 대해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 짧은 말씀에는 평소의 온후한 어조와는 달리 격한 감정이 깃들여  
있는 듯이 느껴진다. 즉 仁道는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몸은 죽어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 하지 말라”는 예  
수의 말씀과 상통된다.

互鄉이란 나쁜 風俗을 가진 동네에서 한 소년이 공자를 찾아와 여러가  
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선생께서 왜 이런 소년을 만나 보실  
까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與其進也，不與其退也，唯何甚。人 潔己以進，與其潔也，不保其往也

23) 論語 憲問篇 22

24) 論語 里仁篇 8

」 25)

「나는 찾아온 사람을 상대한 것이요, 내게서 물러난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자네들 어찌 그리 심하게 굴려 하는가? 남이 제 몸을 깨끗이 하고 왔으면 그 깨끗함을 상대하면 그만이지 과거의 좋지 못하였던 것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나를 떠난 후 어떻게 되든 그것은 문제할 바가 아니다.」

이와 같은 공자의 태도는 간음한 여인이나 悔改한 稅吏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예수의 태도와 흡사하다.

공자는 仁을 완성함으로써 人間은 天意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수양으로써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완전한 인격을 이룸으로써만 하늘의 축복과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점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방탕한 행위를 한 蕩者를 무조건으로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 것이라는 基督教의 말씀과는 다른 점이다.

## V. 맺음말

儒敎는 수세기에 걸쳐 中國人의 思想과 慣習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실사회에 實踐哲學으로써 큰 영향을 미쳐왔다. 仁은 공자께서 평생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심과제로서, 모든 經典의 근본사상은 仁에 있다고 한다. 儒敎의 天에 대한 생각도, 天은 人間에게 德性과 良心을 부여하였다고 보아, 인간의 사회도덕규범도 天來의 것으로 認識하였다. 또한 인간의 덕성과 양심은 仁을 통하여서만이 이룩할 수있다고 생각하여 天과 仁을 同一視 하였다. 이러한 天思想은 基督教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儒敎의 仁과 基督敎의 사랑(愛)도, 孔子는 '사람이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오면 기쁘게 받아들인다'하여 그리스도가 말한 '간음한 여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신 점에서는 서로 흡사하나, 공자가 '德은 德으로써 갚고 直으로써 원한을 갚으라'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公平無私한 태도로 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 參 考 文 獻 》

1. 「原始儒敎」, 金勝惠, 民音社, 1990
2. 「中國哲學의 精神」, 馮友蘭著 郭信煥編譯, 崇實大學校出版部, 1993
3. 「基督敎의 理解」, 한중식, 崇實大學校出版部, 1995
4. 「世界思想全集」 권 45, <그리스도인의 윤리>, 三省出版社, 1977
5. 「論語·中庸·大學」, 明知大學校 文庫 15, 明知大學校出版部, 1995
6. 「論語」, 이원섭 역주, 세명문화사, 1990
7. 「宗敎란 무엇인가」, <儒敎>, 柳承國, 분도출판사, 1982
8. 「儒敎의 天思想」, 金能根, 崇實大學校出版部, 1988
9. 「世界의 宗敎들」, <儒敎>, 휴스톤 스미드원저 閔庚培등 역편, 延世大學校出版部, 1983
10. 「論孟研究論集」, 錢穆 等,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70 (1981)